

# 王維詩에 표현된 盛唐氣象\*

金勝心\*\*

<目次>

1. 序言
2. 왕유시에 표현된 기상의 형성요인
3. 送別詩에 표현된 기상
4. 山水詩에 표현된 기상
5. 應制詩에 표현된 기상
6. 結言

## 1. 序言

성당기상은 성당시대의 시대정신이고 성당시가의 보편적인 기조이고 자랑할 만한 시대적 유산이다.

성당기상에 대해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견도 분분하지만 林庚先生은 “발랄한 기운, 청춘의 선율 이것이 성당기상이고 성당음이다”<sup>1)</sup>李澤厚先生은 “盛唐시대의 문학, 예술 가운데에는 일종의 풍성하고 젊은 정열과 상상이 스며들어 있다. 설사 향락, 낙심, 우울, 슬픔에 대하여 묘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역시 젊음, 자유, 기쁨의 기운이 약동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당예술이며 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부분이

\* 안동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

\*\* 이 논문은 2010년 안동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唐詩綜論》, p. 35. “蓬勃的朝氣, 青春的旋律, 這就是盛唐氣象與盛唐之音的本質”.

바로 唐詩인 것이다.”<sup>2)</sup> 또한 그는 孟浩然的〈春曉〉시를 평하면서 “작품 속에 아무리 봄이 지나감을 슬퍼하고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는 느낌이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시 속에 나타난 것은 상쾌한 폭의 아름다운 봄날 아침의 풍경을 그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盛唐之音이다”고 했다.<sup>3)</sup> 袁行霈先生은 “박대하고 웅혼하고 심원하고 초월하고 충만한 활력 창조적인 희열 참신한 힘, 이것이 ‘성당기상’의 시대풍격과 시대정신이다”고 했다.<sup>4)</sup>

위의 의견들은 嚴羽가 성당기상을 웅혼하고 돈후한 풍격이라고 정의 내린것<sup>5)</sup> 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필자는 이처럼 諸家들의 기상에 대한 광의의 의미를 바탕으로 본고를 작성하였다.<sup>6)</sup>

보통 성당기상을 가장 잘 표현한 작가를 들라하면 李白을 든다. 이백은 젊고 쾌기있는 기상을 시에 표현한 자 중 가장 전형적인 시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시인을 찾아보면 杜甫, 岑參, 高適 등의 시인들을 거론 하곤 한다. 하나의 시대적인 특징인 성당기상이 몇몇 시인들에게 국한하여 표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성당시인 어느 누구에게도 이 기상이 표현되어 있을 것이다.

왕유도 성당시인이다. 그럼 왕유의 시 속에는 성당기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대체적으로 왕유의 시에는 清淡하고 閑適한 情趣가 있다고 한

2) 李澤厚, 《美之歷程》, 文物出版社, 1981, p. 159. “一種豐滿的, 具有青春活力的熱情和想像, 浸透在盛唐文藝之中, 即使是享樂, 頹喪, 憂鬱, 悲傷, 也仍然閃爍着青春, 自由和歡樂, 這就是盛唐藝術, 它的典型代表就是唐詩.”

3) 위의 책, p. 163. “儘管傷春惜花, 但所展現的, 却仍然是一幅愉快美麗的春晨圖畫它清新活潑而并不低沉沈婉, 這就是盛唐之音”.

4) 袁行霈, 〈盛唐詩歌與盛唐氣象〉, 《中國古代文學史》, 1998, 12. “所謂盛唐氣象者限于盛唐詩歌給人的總體印象, 詩歌中呈現的時代風格……博大, 雄渾, 深遠, 超逸, 充沛的活力, 創造的論說, 嶄新的體裁; 以及通過意象的運用, 意境的表現, 性情, 聲色的結合而形成的雍和的美感—這一切合起來就成爲盛唐詩歌與其他時代的詩歌相區別的特徵”.

5) 拙著, 〈盛唐詩歌와 盛唐氣象〉, 《中國人文學會》, 2005, 12, pp. 237-256 참조.

6) 《唐詩美學探索》, p. 82. 張福慶先生 또한 “당대의 시가 중에 시대적인 정신을 반영한 雄渾, 豪放, 剛健, 悲壯한 풍모, 陽剛의 美를 가진 미학적인 풍격은 모두 盛唐氣象에 포함시킨다. 또한 自然, 清新, 秀麗, 明朗, 飽滿, 充實의 우미한 풍격도 당연히 盛唐氣象의 개념의 범주에 포함한다”고 했다.

다. 일찌기 唐 代宗은 그를 “天下의 文宗이고 이름이 그 당시 보기 드문 자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sup>7)</sup> 《純全集》에서도 “문장으로 세상에 우뚝 스다”<sup>8)</sup> 《唐詩品彙》에서도 “왕유의 九天闔闔開宮殿, 萬國衣冠拜冕旒 (구중 궁문 활짝 열고, 만국의 벼슬아치 면류관 쓴 임금님께 절을 하네)는 雄渾悲壯하다”고 했다.<sup>9)</sup>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왕유의 시 속에 기상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당시대 작가마다 다른 기상이 있어 그러한 기상을 살펴보면 성당 기상을 더 폭 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 왕유 시에 표현된 기상의 형성요인

明人 陶明濬은 “氣象은 사람의 풍채와 같아서 반드시 정중하고 위엄이 있어야 한다”<sup>10)</sup>고 했는데, 이 말은 즉 ‘氣象’은 시가에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심미적인 특징이라 마치 사람의 자태, 풍채가 드러나는 사람의 기질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시가의 심미형식이 밖으로 표현되는데 내재적인 정신, 기개, 풍채 같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

왕유시의 내재적인 정신, 겉으로 들어난 풍채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한 시대의 시가예술 풍모는 시대와 사회, 역사적인 상황, 개인적인 기

7) 《王右丞集箋注》부록 〈代宗皇帝批荅手敕〉. “軀之伯氏, 天下文宗, 位歷先朝, 名高希代. 抗行獨雅, 長揖楚辭. 調六氣于終編, 正五音于逸韻. 泉飛籟思, 雲帶欒情. 詩家者流, 時論歸美. 誦于人口, 久鬱文房. 歌以國風, 宜登樂府.”

8) 위의 책, 부록 純全集. “唐右丞王維, 文章冠世.”

9) 위의 책, 부록 《唐詩品彙》. “唐人倡和之詩, 多是感歎, 各臻其妙, 如早朝大明宮, ……王維云, 九天闔闔開宮殿, 萬國衣冠拜冕旒, ……是皆雄渾悲壯, 足以凌跨百代.”

10) 《詩說雜記》卷7, 《滄浪詩話校釋》詩辨 “氣象如人之儀容, 必須莊重.”

질, 사상등과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각 시대마다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것을 막론하고 여타 시대와는 다른 그 시대만의 특수한 환경이 있다. 그러한 환경에서 동시대를 호흡한 작가들의 유사한 체험이 문학을 다른 시대의 문학과 구분되는 그 시대만의 독특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sup>11)</sup>

왕유는 唐 中宗 大足 元年(701)에 태어나 開元, 天寶시대의 盛唐시기에서 가장 성했던 ‘盛世’의 전 과정을 몸소 체험하였다.<sup>12)</sup> 盛唐은 開元元年 ~ 代宗 永泰 元年까지 (713~765) 역사적으로 “開元盛世”란 말을 쓰고 있듯이 경제, 정치, 문화 각 방면에서 최고조로 발전한 시대이다. 물론 중간에 안사의 난이 일어나 당 제국이 하루아침에 곤란한 지경으로 전환되는 일도 있었지만 開元, 天寶시대까지는 당 제국의 국력이 안정과 번영을 누린 시기였다. 주변 이족들은 당나라 위세에 굴복하여 조공이 줄을 이었고 장안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서 번영이 극에 달한 도시였다. 특별히 날로 부강하고 강성해 가는 국가 번영은 국민들에게는 물론 시인들에게도 자신감과 자만감을 충만하게 해 주는 정신적 토대가 된다. 이러한 시집에 있었던 자가 王維이다. 이러한 상황을 王維는 시를 통해 말하였다.

從今億萬歲      지금부터 장차 억만년 세월  
天寶紀春秋      천보의 연호로 길이길이 다스려지길

〈三月三日曲江侍宴應制〉

上巳節에 현종이 曲江에서 신료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때 작자가 황제를 모시면서 응제한 시이다. 이 시는 오랫동안 이 태평성대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가득한데 억만년이란 세월은 우리가 상상할 수

11) 팽철호, 《풍격론》, p. 266 참조.

12) 王維의 출생을 武后 聖曆二年(699)으로 보는 설도 있지만 趙殿成 注한 《王右丞集箋注》와 《舊唐書》, 《新唐書》의 기체에 따라 唐 中宗 長安 元年 西紀701年으로 본다. 卒年은 肅宗上元二年(761)이다.

없는 시간이다.

九天闔闔開宮殿    구중 궁문 큰 대문 활짝 열고  
萬國衣冠拜冕旒    만국의 벼슬아치 면류관 쓴 임금님께 절을 하네  
〈和賈舍人早朝大明宮之作〉

위의 시는 당대의 궁전인 大明宮에서 아침 조회를 할 때 賈舍人이 지은 시에 화답한 시이다. 만 천하에 위세를 떨치는 당 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 “九天”은 “九重天”으로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을 말하고 여기서 황궁을 비유하지만 시 중에 “九天”이나 “萬國”, 〈三月三日曲江侍宴應制〉에서의 “億萬歲”는 그 당시의 기상을 말해 주기에 충분하다.

維虜盡朝周    못 이족들 모두 조정에 인사오니  
諸胡皆自郤    오랑개들도 스스로 모이네

萬方氛祲息    만방의 요사스런 기운 다 사라지고  
六合乾坤大    천지 사방이 진정 태평 무사 하네  
無戰是天心    전쟁이 없음을 하늘의 마음이고  
天心同覆載    하늘의 마음은 이 땅과 같네  
〈奉和聖製送不蒙都護兼鴻臚卿歸安西應制〉

현종의 <안서로 귀환하는 안서절도사를 지낸 부몽 홍려경을 배웅하며>시에 화답한 응제시이다. 대당제국이 못 오랑개를 호령하는 위엄과 기세가 가득하다.

당 왕조는 군사적으로 세운 봉건제국의 넓은 영토, 여러 민족의 귀순, 여러 나라에서 조정에 인사오는 실세,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당인의 공명의식과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이 기상으로 표출된 것이

다. 이처럼 건공입업의 자랑스러움, 영웅주의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와 盛唐 사대부들의 인생 가치관에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위의 시들은 성당시대의 편안하고 안정된 사회배경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왕유는 충분히 마음껏 기상을 표현한 수 있었을 것이다. 왕유의 일생 중에서 안사의 난이 일어나던 해는 天寶14년으로 그가 55세 였을 때 이다. 그러니 태어나서 청 장년시기까지 쓴 시 속에 자못 기상이 있는 시를 많이 썼음을 알 수 있다.

豈復小千室    어찌 천호의 고을이 작다하리  
絃歌在兩楹    현악기 소리 대청 마루 기둥 앞에서 들리네  
浮人已歸    타향을 떠돌던 나그네 나날이 다 돌아와  
但坐事農耕    편안히 앉아 농사지으리  
〈贈房盧氏瑄〉

하남성 노씨 縣에서 현령을 하던 방관에게 주는 시이다. 고향이 태평하니 타향에서 떠돌던 나그네들이 다 돌아오고 주변에서는 음악소리 들린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묘사하였다.

故鄉信高會    고향에서 성대한 모임 있는데  
牛體及家臣    고기와 단술이 수종드는 자에게 까지 돌아가는구나  
幸同擊壤樂    다행히 오늘 태평성대의 즐거움 함께 누리니  
心荷堯爲君    마음속엔 온통 요임금 모시고 있다네  
〈晦日遊大理韋卿城南別業〉 四首 中 一

정월 그믐날 형벌을 관장하던 관청인 대리사 위경의 성남별장을 유람하며 지은 시로 4수가 있는데 그 중 첫 수이다. 손님을 접대하는 음식과 술이 손님을 접대하는 시중하는 자에게 까지 돌아 갈 정도로 풍성히 넘친다. 격양가를 부르며 태평성대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가정 환경은 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대단한 영향을 준다. 그가 태어났던 곳은 太原이고 후에 그의 父親이 汾州의 汾州司馬의 관직을 받아 晉南일대 蒲州로 이사했다. 蒲州는 지금의 山西 南部의 永濟이다.<sup>13)</sup> 이곳은 옛날 舜임금이 이곳에 도읍을 정했던 곳이다. 이곳의 형세가 험난하였고 서쪽으로는 黃河, 동쪽으로는 太行山, 남쪽으로는 潼關, 북쪽으로는 龍門이 있었다.<sup>14)</sup> 당 玄宗도 이곳의 풍광을 시로 읊을 정도로<sup>15)</sup> 훌륭한 곳에서 왕유는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9세 때부터 시를 짓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풍광이 뛰어나고 산세가 수려한 곳에서 왕유는 호연지기를 충분히 기를 수 있었다고 본다.

청소년 시기 왕유는 포부가 대단했다. 의협심이 있고 오랑캐를 무찌르고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의기가 있었다. 왕유는 정치적 야망도 있었고 사상도 진취적 적극적인 면이 있었다.<sup>16)</sup> 그는 재주가 있어 진사에 시험 보기 전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었다. 開元7년 京兆府試에 응시하여 1등에 뽑혔다. 開元9년 진사과에 응시했다가 한번에 등제되기도 하였다. 처음부터 太樂丞이 되었다. 이 때 관직을 받고 지은 시가 아래 시이다.

趙魏燕韓多勁卒 조, 위, 연, 한나라 땅에 강한 군사 많고  
關西俠少何咆勃 관서 지역의 젊은 협사는 혈기 왕성하네  
報讎只是聞鶻膽 원수를 갚고자 오직 구천의 상담고사 들으며  
飲酒不曾妨刮骨 뼈 깎임을 아랑곳 하지 않았던 관우처럼 술 마시네

13) 劉維崇 《王維詩評傳》, “王維的原籍本是太原, 後來他父親因為到汾州做官, 認為晉南一帶, 氣候風土很好, 就徙家蒲州. 蒲州就是現在山西南部的永濟.”

14) 위의 책, pp. 1-2 참조.

15) 위의 책, p. 4 참조. 唐玄宗의 《曉渡蒲津》詩: “鐘鼓嚴更響, 山河野望通. 鳴鑼下蒲坂, 飛旆入秦中. 地逾關逾壯, 天平鎮向雄. 春來津樹合, 月落戍城空. 馬色分朝景, 鷄聲遶曉風. 所希常道泰, 非復候繻可

16) 陳貽歡의 《王維的政治生活和他的思想》, “王維中年以前接近當時比較進步的政治力量, 思想感情中也有確存在着進步的和積極的因素, 而這些因素却又是他許多詩歌帶有人民性與積極意義的根據, ……” 《唐詩論叢》, p. 124.

麒麟錦帶佩吳鉤 기린 수 놓은 비단 허리 띠에 귀한 오구를 찼고  
風沓青驪躍紫驄 수 많은 청흑마는 적색마와 함께 뛰어가네  
拔劍已斷天驕臂 칼을 뽑아 단번에 흉노의 팔을 자르고  
歸鞍共飲月支頭 돌아오는 말 위에서 월지왕 두팔로 함께 술을 마시네  
漢兵大呼一當百 아군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에 일당백의 사기 넘치니  
虜騎相看哭且愁 오랑캐 기병들 서로 바라보며 울며 서글퍼하네  
敎戰須令赴湯火 군사훈련에는 병사들로 하여금 물불을 가리지 않도록 하고  
終知上將先伐謀 상장군은 결국 책략전을 우선시 해야 함을 아네  
〈燕支行〉

기세와 기상이 넘친다. 이 시는 甘肅省 永昌縣 서쪽, 山丹縣 동남 쪽에서 기린산과 용수산 사이까지 뻗어 있는 연지산의 이름을 따서 燕支行이란 제목의 歌行體이다.

혈기왕성한 관서지역의 젊은이들, 춘추시대 월왕 구천이 오랑 부차와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자 귀국후, 자리위에 쓸개를 매달아 놓고 자신이 몸소 당한 치욕과 고통을 잊지 않으려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겠다는 의지, 흉노족의 팔을 자르고 월지왕의 두개골로 술을 마시는 호기, 한 사람이 백사람을 당해내는 패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용기 등 변세에서 나라를 위해 젊음을 불사르는 자신감이 팽배하다. 진취적인 정신이 충만했을 당시를 알 수 있다.

新豐美酒斗十千 신풍의 미주는 한 말에 만 냥이고  
咸陽遊俠多少年 함양의 협사 대부분 젊은이인데  
相逢意氣爲君飲 서로 만나 의기투합하며 그대 위해 술 마시려고  
繫馬高樓垂柳邊 주루의 수양버들 가에 말을 매어 두네  
〈少年行〉四首 中 一

왕유의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시인데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의리를 중히 여기며 강개 격앙하여 공명을 세우는 젊은 협사들의 호쾌한 우정을 표현했는데 이러한 나라를 위한 정신, 영웅적인 자세가 바로 성당인의 정신이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성당기상이다.

이처럼 왕유 시에 기상이 형성된 것은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개인적 환경의 요소가 컸다. 그야말로 성당시대처럼 안정과 번영을 누렸던 시대는 그 시대를 살았던 왕유에게 자신감과 자만감을 충만하게 해 주었다. 사회적으로 평온함 속에 나라를 위한 건공입업은 어릴 적부터 유희사상과 영웅주의 사상을 기르게 하였고 인생가치관의 중요한 목표가 되게 했다.

또한 왕유의 가정환경은 舜 임금의 도읍으로 정했던 蒲州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곳은 풍광이 뛰어나고 산수가 수려하여 왕유는 어릴 적부터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의협심을 기르고 오랑캐를 무찌르고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의기, 정치적 야망이 합쳐져 진취적, 적극적인 기상을 기를 수 있었다.

### 3. 送別詩에 표현된 기상

현존하는 왕유시 420여수 중 송별시는 70여수 정도이다.<sup>17)</sup> 왕유시에서 송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송별시에 나타난 송별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동향인이고 하나는 동료이다. 송별하는 대상으로 본 송별 내용은 대체적으로 변방으로 가는 친구를 송별하거나, 관직을 받고 떠나는자를 송별하는일, 폄적되어 유배생활 하러 가는 이와와 이별, 과거에 떨어져 귀향하는 이

17) 趙殿成的 《王右丞集箋注》에 수록된 시 분석.

를 위한 송별 등이다.

보통 송별시에 나타는 주제는 동정, 권면등의 주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왕유의 송별시는 대단한 자신감이 있고, 열렬한 정치적 색채가 있어 애수어린 전통적인 송별시에 비해 그는 의기양양하고 의기 충전된 낙관적인 정신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송별시를 썼다. 그래서 기조가 결코 처량하지 않다. 왕유의 송별시에는 建功의 이상과 숭고한 인격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의기가 양양되고 분발하는 혈기왕성한 풍격이 두드러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당시대는 대부분 建功立業의 보편적인 갈망을 추구하는 시대적 역사적 특징이 있다. 국가적으로 전대미문의 강성함, 경제적인 번영, 문화적인 개방과 소통속에서 당인들의 건공입업의 강렬한 야망은 이러한 시대적 역사적인 유혹으로 생겨난 것이다.

單車曾出塞	단순한 수레 타고 일찍이 변새지대로 나가니
報國敢激動	오직 보국의 마음 뿐 어찌 감히 공훈을 추구하랴
見逐張征虜	이제 그대 정로장군 張飛를 따르려고
今思霍冠軍	바야흐로 관군후 霍거병을 생각하네
沙乎連白雪	사막은 광활히 백설로 이어지고
蓬卷入黃雲	속대는 바람에 말려올라 황사구름으로 들어오네
慷慨倚長劍	문득 강개 격앙하여 장검을 허리에 차고
高歌一送君	목청껏 노래불러 그대를 전송하리

〈送張判官赴河西〉

하서절도사 관관으로 부임해 가는 장썌를 송별하며 지은 시이다. 왕유의 功名에 집착한 심리가 엿보인다. 시인은 자신이 과거 변새지방으로 갔을 때의 일을 생각하며 매우 강한 어조로 묘사하였다. 광활히 이어지는 백설, 거센 바람에 휘말려 올라가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 같은 황사, 의기가 격앙되고 정기가 충만한 보국에 대한 강렬한 의지, 웅장하고

큰 경계가 전개되어 있다. 이러한 경계는 송별 할 때의 시인의 넓고 깊은 마음을 비추어 주고 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나라를 위하고 공을 이루는 일을 만났으니 보내고 헤어진다는게 결코 슬픈 것은 아니라고 격려하고 있다. 비장함이 엿보이는 시이다. 시 중에 기개가 드높고 위풍당당하게 벼를 보내는 형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별하는 마당에도 자신감이 충전되어 있는 성당인 왕유의 기상을 엿볼 수 있다.

天官動將星	하늘나라 별자리 가운데 장군별이 움직이고
漢地柳條青	옛 한나라 땅엔 버들가지 푸르네
萬里鳴刁斗	만리 원정길에 조두 소리 울리며
三軍出井陘	삼군의 장사들이 정형구를 나가네
忘身辭鳳闕	자신을 돌보지 않고 봉황궁궐 떠나가서
報國取龍庭	보국하여 용정을 빼앗으리
豈學書生輩	어찌 저 서생의 무리들을 배워
鷹聞老一經	창가에서 일경 읽으며 늙어가리요

(送趙都督赴代州得青字)

이 시는 대주로 출정하는 조도독을 송별하며 지은 시이다. 전쟁에 대한 승배가 더욱 두드러진다. 오직 나라를 위한 일념으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는 오직 義를 위한 영웅주의 정신이 시에 가득하다. 시인은 이상주의의 안목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군대생활을 바라보며 피 흘리는 전쟁 속에서도 충만한 의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전쟁터에서는 서로 죽이고 공명을 얻어야 목적 달성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한 전쟁, 공명을 위한 전쟁의 자신감, 자만감이 가득하다.

당인들이 종군에 나가고 유희정신을 숭상하는 배경에는 조정에서 격려하는 정책과도 관계가 있다. 《新唐書》에서 당대 과거시험 중 “軍謀宏遠”의 과목을 정치인재 중에서 선발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sup>18)</sup> 또 唐

18) 《新唐書》 志第34 選舉志上. “其爲名目, 隨其人主臨時所欲, 而列爲定科者, 如……軍謀宏遠權任將

玄宗은 “전쟁에서 功을 숨기고 칭찬받지 못하는 자는 다 목을 벨 것이며, 전쟁에서 대열을 이끌고 우두머리를 사로 잡는 자는 大將軍을 수여 하겠다”<sup>19)</sup>고 밝힌 바도 있었다.

이러한 특별한 정책은 그 당시 사대부들로 하여금 대대적으로 자극을 받게 했고 변세로 나가 나라를 위해 싸우게 만들어 군대에서 당시 가장 재화가 출중했던 묵객문인들을 비판하고 막사로 불러들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그 당시 散騎常侍였던 高適도 말한 바 있다.

大笑向文士	문인들을 향해 크게 웃으니
一經何足窮	경서를 읽은 들 족하겠는가?

(塞下曲)<sup>20)</sup>

오랫동안 左戎幕에서 嘉州刺史의 관직을 맡았던 岑參도 이와같은 사상이 있었다.

功名祇向馬上取	공명을 삼가 말 위에서 취하니
眞是英雄一丈夫	정말 영웅이요 대장부다

(送李副使赴嶺西官軍)<sup>21)</sup>

위의 시는 岑參의 송별시이다. 天寶10년 (751) 李副使가 武威를 떠나 멀리 嶺西로 가는데 읊은 시 이다. 岑參이 李氏에게 공을 세우고 이름을 드날리도록 격려한 것인데 이상과 壯志가 대단하다. 영웅적 호기가 바로 작자 자신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率...可以理人之類, 其名最著”  
 19) 위의 책, 傳第141 吐蕃上. “敢有掩戰功不及賞者, 士自陳, 將吏皆斬. 戰有逗留, 擣隊如軍法. 能禽其王者, 授大將軍”  
 20) 劉昫《高適詩集編年箋注》p. 269 에서 《漢書·藝文志》: “後邇邇以馳逐, 故幼童而守一藝, 白首而後能言, 安其所習, 畏所不見, 終以自蔽, 此學者之大患也.”  
 21) 四部刊要, 《岑參集校注》, p. 95.

이와 같이 성당시대는 나라를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움터로 나가는 젊은이를 더욱 가치 있게 보았고, 유학을 경시하는 풍토가 있었다. 그 당시 시대적 역사적 환경이었다. 그래서 왕유는 송별시 속에서도 功名을 중시하고 이별은 별로 의미가 없었다. 왕유도 이러한 시대적 역사적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鏡吹喧京口	경구만에 풍악소리 요란한데
風波下洞庭	거센 풍랑 헤치며 동정호로 내려가니
赫圻將赤岸	적안과 자기 일대 거쳐
擊汰復揚舫	물결을 치며 나뭇배 저어가리
日落江湖白	서산에 해 지며 강호는 흰 빛으로 출렁이고
潮來天地青	조수 밀려오니 천지 온통 푸르네
明珠歸合浦	빛 고운 진주 합포 해역으로 되돌아 오도록
應逐使臣星	응당 사신성을 따라야 하지

(送那桂州)

계주는 지금의 강서성 계림시 일대이다. 이 시는 계주자사로 부임해 가는 형씨를 전송하며 지은 시이다. 송별시인데도 시 중에는 밝고 활기찬 생동감이 넘친다. 풍악소리 요란하며 거센 풍랑 헤치고 동정호로 내려가는 모습이며, 흰 빛으로 출렁이는 강호, 온통 푸른 천지등, 친구를 떠나보내는 이별의 아픔보다는 글자 한 자 한 자 가운데 기쁨이 있고 희망이 가득차 있다. 이처럼 왕유의 송별시 속에는 서정적인 이별의 슬픔보다는 격조가 높고 기개가 넘친다.

성당의 영웅의식, 영웅주의는 진한시대 의협정신이 밑바탕이 되어 성당시대에 활짝 꽃을 피웠다. ‘俠’은 ‘義’와 ‘力’의 상징이다. 성당시대 시대적인 목표가 되어 당인들의 영웅의식과 영웅주의로 변하여 성당기상의 시대정신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정신이 충만했던 시인으로 이백은 “十步殺一人，千里不留行(열 걸음에 한 사람씩 죽이고, 천리길도 주저하

지 않는다)”고 말했다.<sup>22)</sup> 그는 스스로 말하길 : “隴西의 서민으로 楚와 漢을 유랑하며 지내다 15세에 검술을 좋아해 晁후를 두루두루 거치고 30세에 문장을 이루어 卿相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키가 7척 밖에 되지 않는 점이 만족스럽지 못하나 마음만은 당당한 대장부이니라”<sup>23)</sup>

이러한 의협이 강한 자아형상은 좀 과장된 점이 있지만 동 세대를 살았던 高適, 王翰, 王之渙, 王昌齡등의 시 중에서 익숙하게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편적인 시대 숭상과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왕유는 정치에 대해 희망을 갖고 가치를 둔 사대부 지식층이 되어 풍류스럽고 호방하고 용기있고 진취적인 유희의 자아형상을 시 속에 자연스럽게 묘사했다.

그의 <少年行>에서 그의 어린 시절 유희영웅의 늙름한 정신을 읽을 수 있다.

新豐美酒斗十千	신풍의 미주는 한 말에 만났이고
咸陽遊俠多少年	함양의 협사는 대부분 젊은이인데
相逢意氣爲君飲	서로 만나 의기투합하며 그대 위해 술 마시려고
繫馬高樓垂柳邊	주루의 수양버들 가에 말을 매어 두네
出身仕漢羽林郎	짐을 떠나 벼슬길에 나가서 황실 우림랑 되고
初隨驃騎戰漁陽	처음에는 표기장군을 따라 변방 어양에서 참전하였는데
孰知不向邊庭苦	당장 변세로 달려가지 못하는 이 괴로움을 누가 알리
縱死猶聞俠骨香	죽을 지 언정 꼭 후세에 협사의 유골 향기 맡게 하리

시인은 義를 중시하고 俠를 행하는 의협소년들을 대단히 지지하며 감상하는 태도이다. 왕유의 적지않은 시들이 이처럼 자기 몸을 가벼히 여기고 나라를 위한 의협의 행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夷門歌>에서도

22) 《李太白全集》의 <俠客行>詩.  
23) 李白的《與韓荊州書》：“白隴西布衣，流落楚漢，十五好劍術，徧干諸侯，三十成文章，歷抵卿相，雖長不滿七尺而心雄萬夫”。《李太白全集》，p. 606.

向風加顛送公子 북쪽을 향해 스스로 목 베어 위공자를 전송하니  
七十老翁何所求 칠십노옹 무엇을 바라는 바 있으랴

사사로운 공명심은 조금도 없고 오직 정의감으로 충만된 후영의 고결한 인품을 강조했다. 이 시는 후영의 의협정신을 표현하면서 은근히 왕유 자신을 암묵적으로 표현한 시이다. 이와같은 기상이 왕유의 송별시 곳곳에 표현되어 있다. 이 외에도 〈送邢桂州〉, 〈送梓州李使君〉, 〈送陸員外〉, 〈送崔五太守〉, 〈送元中丞轉運江淮〉, 〈送孫秀才〉 등과같은 시에서도 낙관적, 적극적, 진취적인 감정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송별시는 감정이 서정적으로 흐르기 쉬운데 왕유의 송별시는 자신감 넘치고 기개가 있어 애수어린 전통적인 송별시에 비해 그는 의기 양양하고 의기 증천된 낙관적인 정신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송별시를 썼다. 그래서 기조가 처량하지 않다. 왕유의 독특한 송별시는 성당 기상중 하나의 표현으로 낙관적이고 호방한 기조와 강개의 풍격으로 나타났다.

왕유의 송별시 내용은 변방으로 파송되어 가는 친구를 전송 한다던가, 펼쳐되어 유배생활 하러가는 친구를 배웅 한다던가 과거에 떨어져 귀향하는 이를 송별하는 등 어느 송별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는 공명을 중시하고 의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시대적 풍토에서 자신감이 있고 의기양양하고 낙관적인 정신이 송별시에 나타나 이상과 壯志가 있는 기상을 펼 수 있었다.

#### 4. 山水詩에 표현된 기상

왕유는 산수시의 대가이다. 왕유의 산수시는 청일하고 한적하면서도

시원스럽고 자연스럽다는 평을 한다.

성당시대는 건강하고 밝은 시대이다. 건공입업,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상은 왕유의 산수시에서도 볼 수 있다. 왕유는 산수시를 그윽하고 조용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성당시대의 특유한 옹혼함이 있고 깊이가 있다. 이것이 왕유의 시에 나타난 빛나는 성당의 기백이다.

楚塞三湘接	한강은 옛 초나라 변방 삼상에 인접해 있고
荊門九派通	형문산 일대 강강의 아홉 지류와 서로 통하네
江流天地外	강물은 하늘가 저 너머로 흐르고
山色有無中	먼 산의 경색은 보일 듯 말 듯
郡邑浮前浦	강 기슭의 군성은 앞 포구에 떠 있고
波瀾動遠空	출렁이는 강 물결은 먼 공중에서 넘실대는데
襄陽好風日	양양땅 아름다운 풍광 속에
留醉與山翁	머무르며 산옹과 더불어 취하리

〈漢江臨汎〉

한강을 아득히 내려다보며 쓴 시이다. 시인은 교묘하게 한 폭의 그림을 시 속에 융화시키고 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술의 경계를 형성하여 움직이고 흘러가는 감정을 풍부하게 했다.<sup>24)</sup> 시인은 漢江의 광활한 물의 흐름을 상상하고 팔팔 흘러가는 강물이 마치 천지 밖으로 흐르는 것 처럼 묘사하였다. 독자들로 하여금 중국 산천의 광활함을 느끼게 해준다.<sup>25)</sup> 파도가 웅솟음치는 무한한 강물을 대하면서 시인은 번뇌를 잃어버렸다. “留醉與山翁” 양양의 풍경을 대하니 취하고 싶은 심정이 발동한다. 이와 같은 기세의 옹위함, 광대한 의경, 이게 바로 성당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 시를 보자.

24) 徐應佩 先生은 “詩人的筆墨從天地外收斂，寫出眼前波瀾出閭之景”이라 평했다. 《唐詩大觀》, p. 161.  
25) 《唐詩三百首》邱燮友註譯, 三民書局：《漢江臨汎》의 〈作法分析〉에서 “江流, ‘山色, ‘郡邑, ‘波瀾’一氣貫注而下, 亦如江水奔流, 使人深深地, 體會到祖國山川的壯麗.”



遂爲西峙嶽 화산이 마침내 서쪽에 우뚝한 산악이 되어  
 雄雄鎮秦京 강성한 위세로 서울을 든든히 지키네  
 〈華山〉

오악의 하나인 화산을 읊은 시이다. 산을 표현하는데도 우뚝 높이 솟은 산의 모습이 올창하여 검푸른 색이 되어 하늘까지 닿아있다. 대자연의 웅장함, 거대한 자태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강성한 시대에 처해있는 시인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흥성하는 시대 속에서 자연히 호방한 감정이 가슴에 가득 차게 되고, 그 상태로 바라보이는 대 자연은 의기가 충만하여 더욱 거대하고 웅장하게 보인다.

大漠孤煙直 광활한 사막에 한 가닥 봉화 연기 곧게 피어오르고  
 長河落日圓 끝없이 흐르는 강물 저 너머로 지는 해 둥근데  
 〈使至塞上〉

변세지대로 출사하며 지은 시이다. 왕유는 어명을 받고 감찰어사의 신분으로 위문과 감찰의 임무를 띠고 하서 양주로 출사하였으며 그때 하서 절도사의 막부에서 절도판관을 겸임하기도 하였는데 이 시는 바로 당시 하서에 막 도착하여 지은 시이다. 변세의 풍경을 묘사했지만, ‘大漠’, ‘直煙’, ‘長河’등, 광활한 사막, 곧게 올라가는 연기, 끝없는 강물 등 시야가 넓고 크다. 이처럼 왕유의 산수시는 웅장하고 활달한 경물을 써 표현한 것이 특색이다.

空山新雨後 쓸쓸한 산에 비 내린 후  
 天氣晚來秋 어스름 저녁이라 가을 기운 물씬 풍기네  
 明月松間照 밝은 달빛은 솔 숲 사이로 비추고  
 清泉石上流 맑은 샘물은 산석위로 흐르네  
 竹喧歸浣女 대 숲 시끄럽더니 빨래하던 처녀 돌아오고  
 蓮動下漁舟 연 잎 움직이더니 고기잡이 배 내려가네

隨意春芳歇 향기로운 봄 풀 제 멋대로 다 시든다 해도  
 王孫自可留 왕손이 의연히 머물만 하구나  
 〈山居秋暝〉

이 시는 가을 저녁에 산장에서 느끼는 감회를 쓴 것이다. 펼쳐지는 배경은 비 온 후 가을 정경으로 어찌 보면 평범한 산수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잘 음미해 보면 독자들에게 풍부하고 신선한 감정을 가득 느끼게 한다. 맑고 신선하고 평안한 산수시 속에 열정적인 활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萬壑樹參天 수 많은 산 골짜마다 우거진 나무들 하늘 찌르고  
 千山響杜鵑 천 만겹 산줄기에 두견새 우는 소리 울려 퍼지는데  
 山中一夜雨 산중에 밤 새 즐기찬 비 내리  
 樹杪百重泉 나뭇가지 끝마다 수 백의 샘물 줄기 흐르네  
 〈送梓州李使君〉

위의 시는 제주 이사군을 보내며 쓴 송별시 이다. 그렇지만 梓州의 풍광이 대단히 웅장하게 묘사되어 있다. 梓州는 지금의 四川 三臺縣이다. 뾰뾰한 산 속에 우거진 나무들은 하늘을 꿰뚫고 들어갈 만한 크기와 기상이 있다. 우는 두견새를 표현하는데도 온 산에 그 울음 소리를 퍼지게 했고, 산 속에서 밤새 내리는 비를 수 백 그루의 나뭇가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했다. 이 얼마나 기운이 생동하고 활기가 넘치나. 시의 경계를 대단히 크고 넓게 설정해 놓은 것이다.

왕유의 산수시는 조용함, 아름다움, 맑음이 있는 반면, 한 가닥의 웅장한 차가움, 조용하고 한적한 중에서도 강렬한 감정의 흐름이 있다. 이렇게 숨어있는 생동감, 활기, 열정이 바로 林庚先生, 李澤厚先生, 袁行霈先生이 말하는 성당예술이고, 성당의 음이고 성당기상이 아니겠는가? 성당시대의 강성한 시대기운의 넓은 마음으로 왕유는 山河를 바라보았

다. 번세의 장려하고 웅장한 경색, 도시의 화려함, 皇家의 기세 등 아득하고 광대한 산천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기세가 의기양양한 시대정신이 있었기에 그렇게 노래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왕유의 산수시 속에 있는 산과 들은 웅장하고 거대하다. 종남산이나 한강에서처럼 사물을 크게 보았다. 산의 주된 봉우리의 높이를 그려내면서 한편으로는 산맥이 이어지는 광활한 것을 그려내기도 했고, 종남산의 높음과 넓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近天都”, “到海隅”의 표현을 하며 독자들의 상상에 맡겼다. 강이 천리까지 흐르는 생동감 있는 기상을 왕유는 산수시에 충만한 기백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한가하고 그윽한 산수에서도 큰 공간, 큰 움직임을 사용하여 웅장함, 광활함, 활달한 기상을 표현하였다.

## 5. 應制詩에 표현된 기상

응제시는 당시의 문인들이 황제의 명을 받아 지은 시 이거나, 황제가 한 수의 시를 쓰면 신하들이 그 제목을 이용하여 또 한 수의 시를 지어 화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응제시의 특징은 황제가 생활하면서 경축일, 연회, 오락, 순시 등 즐겁고 기쁠 때 시를 지어 황제의 공을 노래하고 德을 칭송함으로써 황제의 기분을 맞추어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왕유가 태어난 해는 中宗 大足 元年으로 이 때는 武后가 唐 太宗의 “貞觀之治”를 발전시켜 農桑을 중시하고 안팎으로 평안하게 다스리면서 호국수를 늘리고 인재를 양성하여 미래 唐 玄宗의 “開元盛世”의 기반을 잘 닦아 간 해 이다. 왕유는 이러한 “開元盛世”의 전과정을 다 겪을 수 있었던 행운이 있었다. 開元15년 왕유는 겨우 15세, 개원 29년 그는 43

세가 되었다. 그의 일생 중, 중장년까지 功業정신이 충만한 세월인 “開元盛世”의 시간 속에 보낸 셈이다. 이 “開元盛世”의 여파는 天寶기간 중에도 이어졌다. 天寶 13년 왕유는 54세 였다. 후에 비록 안사의 난을 겪기도 했으나 오히려 그는 肅宗의 “中興之治”를 목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회적, 시대적으로 대체로 평온한 시대에 있었던 왕유, 그의 응제시에서도 시대의 단면을 느낄 수 있다.

渭水自縈秦塞曲	위수는 유유히 진나라 땅을 감돌아 흐르고
黃山舊繞漢宮斜	황산은 의구히 한나라 궁전을 휘둘러 비스듬히 뻗었네
鑾輿迴出仙門柳	임금님의 수레 멀리 황궁 성문 앞 버들길로 나와선
閣道迴看上苑花	각도로 들어 머리 돌려 상림원의 꽃 떨기를 바라보니
雲裏帝城雙鳳闕	얽은 구름 속 황성에는 한 쌍의 봉황 궐문 우뚝 솟았고
雨中春樹萬人家	내리는 빗 속 푸른 봄 나무 사이로 수 많은 인가가 보이네
爲乘陽氣行時令	이 행차는 봄 기운을 타고 절기마다 성인을 베풀기 위함이요
不是宸遊重物華	결코 임금님 순유하며 경치 감상하려는 것은 아니라네
	〈奉和聖制從蓬萊向興慶閣道中留春雨中春望之作應制〉

현종이 비오는 날 봄경치를 감상하며 읊은 시에 화답한 시이다.

蓬萊는 唐의 大明宮이고 궁내에 蓬萊地가 있다. 東內라고도 칭한다. 閣道는 높은 누각으로 향하는 通道이다. 진나라 땅을 감도는 위수, 한나라 궁궐에 둘러싸인 황산, 수도 장안의 배경을 굉장히 크게 표현하였다. 장안을 둘러싼 지리적 형세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성당시대의 대외전쟁은 대체로 모두 唐이 승리하여 당제국의 판도는 전에 없던 혁혁한 공을 이루면서 크게 확대되었다. 당 초기 당의 큰 적이었던 돌궐족, 거란족, 토번, 회흘등의 소수민족이 하나하나 당에 돌아와 조례를 바치고 그 당시는 강국이었던 일본, 조선, 인도, 월남, 인니등 외국사절도 당의 조정에 들락거렸던 때이다.



받았다. 그러니 그가 응제시를 쓰면서 황제의 선심을 얻으려고 과장된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 결코 위선적으로 아첨하여 명예를 구하려는 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시는 크고 광활하고 천하를 포용하는 기상이 있다. 당 현종이 천장절에 천하의 위엄과 길조의 표시인 “慶雲”, “靈芝”로 왕성하게 드러나는 성당기상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해는 동쪽에서 우뚝 솟고, 사방의 산들과 강들에 비추어 주고 웅장하고 장려한 대명궁 정문이 활짝 열린다. 당 현종은 단정하고 의엄하게 당에 오른다. 머리에는 지고 무상한 황제의 관을 쓰고 천하 태평한 생활속에서 만민들은 즐거워하고 정말 상서로운 날이다.

왕유는 고양된 정치열정으로 이처럼 지도자를 노래한 것이다. 왕유의 응제시 속에는 이처럼 글 자 한 자 한 자, 한 행 한 행에서 성당기상을 느낄 수 있다.

豈如玉殿生三秀    어찌 궁전에 영지가 돌아나 자라며  
詔有銅池出五雲    어떻게 용지 위에 오색 구름이 피어오르나  
(大同殿生玉芝龍池上有慶雲百官共睹聖恩便賜宴樂敢書御事)

대동전 기둥에 영지가 자라나고 용지 위에 오색 운기가 피어나는 것을 조정 백관이 다 같이 보며 황제의 성은에 감사하며 지은 시이다. 한 무제의 태평성대에도 황궁의 기둥 밑에 영지가 돌아나거나 연못 위에 오색구름이 피어오르는 일은 없었음을 상기하면서 성당의 황제의 치하를 칭송하였다. 이 시 또한 성당의 역사적인 배경과 민족적인 자신감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정신이 있었기에 비교적 평탄하고 순탄한 관직을 맡으며 조국에 대해 비교적 흥성한 시대를 그대로 응제시로 표현한 것이다. 그의 응제시의 다른 점은 성당의 경제번영, 국가강성, 사회현실을 그대로 묘사했고 전반적인 성당의 역사를 시로 써 그려낸 것이다. 당시의 강렬한 민족적 자만감, 자신감, 적극적이고 낙관적, 진취적인

정신이 있었고 인생에 대해 미래에 대해 대단한 자신감이 있었다.

이러하기에 왕유의 응제시는 확실히 성당시대의 시대정신의 풍부한 뜻을 그대로 깊이 있게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왕유의 응제시 속에서도 기세가 웅장하고 경계가 광활하게 성당기상을 표현하였고 당제국의 강대한 기백, 위엄, 군신들의 기쁨, 성세의 풍모가 그 기상 속에 가득하다.

## 6. 結 言

성당시대의 시대정신은 성당기상이다.

이 시대를 살았던 시인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그 나름대로 독특한 성당의 기상이 있을 것이다.

왕유는 성당시인이다. 왕유는 대체적으로 청담하고 한적한 시를 많이 썼다. 그래서 그에게는 청담하고 한적한 정취가 있다고 한다. 필자는 그러한 왕유에게서도 분명 성당기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본고를 작성하게 되었다.

먼저 왕유의 시 속에 기상이 형성된 요인을 살펴보았다. 기상은 왕유가 살았던 시대적, 역사적 배경과 개인의 가정환경에서 찾을 수 있었다. 왕유가 살았던 시대는 대체적으로 “開元盛世”의 영향을 받았던 시대이다. 당 제국의 국력이 안정과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고 국제적으로도 이 민족이 굴복하고 조공이 줄을 이었던 강성한 국가 번영과 태평성대가 이어지면서 왕유는 대당제국에 대한 위엄과 기세를 시에 충만하게 표현하였다.

건공입업의 자랑스러움, 영웅주의 정신을 마음껏 기상으로 표출할 수 있었다. 또 그가 어렸을 때 자랐던 곳은 옛날 舜 임금이 도읍을 정했

던 蒲州로 풍광이 뛰어나고 산세가 수려한 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호연 지기를 기르며 유희정신을 갖게 되었고 야망, 진취적, 적극적인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시를 송별시, 산수시, 응제시의 세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송별시에 나타난 기상은 예수어린 전통적인 송별시에 비해 의기양양하고 의기 충진된 낙관적인 정신, 건공입업의 이상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었다. 헤어지는게 결코 슬픈것 만은 아닌 비장한 기개가 드 높고 위풍 당당하게 벼를 보내는 자신감이 충천되어 있는 기상을 볼 수 있다. 왕유의 송별시는 서정적인 이별의 슬픔보다는 격조가 높고 기개가 넘치는 송별시이다.

그의 산수시도 그윽하고 조용하면서도 생동감이 있다.

웅장하고 의기있는 풍경을 더욱 웅장하게 더욱 광대하게 표현하여 성당의 시대정신을 산수시에도 반영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왕유의 호방한 의기가 시인의 조국 산천을 웅장하고 거대하게 표현하여 기상을 드러내게 하였다.

응제시 또한 대당제국의 위엄, 강성한 국력을 기세가 웅장하고 경계가 광활하게 강건하고 온후한 기상으로 성당기상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盛唐의 山水詩人인 王維의 시에서도 盛唐기상이 나타나 있음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후에 계속해서 성당 각 시인들의 성당기상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 되었는지 연구해 본다면 성당기상을 더욱 폭 넓고 깊게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趙殿成 箋注, 《王右丞集箋注》, 河洛圖書出版, 1975.  
郭紹虞, 《滄浪詩話校釋》, 北京人民大學出版, 1961.  
陳貽焮, 《唐詩論叢》, 湖南人民出版社, 1979.

張萬超譯注, 《世說新語譯註》, 中華書局, 2003.  
《王維研究》第一輯, 中國工人出版社, 1992.  
劉維崇編, 《王維評傳》, 正中書局, 1972.  
徐賢德, 《王維詩研究》, 文津出版, 1973.  
張福慶, 《唐詩美學探索》, 華文出版, 2000.  
董乃斌 編, 《王維詩》, 鳳凰出版, 2006.  
李玉珍, 《唐代詩人名家名作賞讀》, 北京線裝書局, 2007.  
傅紹良, 《盛唐文學的文化透視》, 陝西師範大學出版, 2000.  
傅東華選註, 《王維詩》, 商務印書局, 1963.  
伊藤正文, 《王維》, 集英社, 昭和 58.  
陳鐵民, 《王維新論》, 北京師範學院出版, 1992.  
都留春雄注, 《王維》, 中國詩人選集6, 1983.  
入谷仙介, 《王維》, 筑摩書房, 昭和 48.  
入谷仙介, 《王維研究》, 創文社, 昭和 51.  
林庚, 《唐詩綜論》, 人民文學出版, 1987.  
《唐詩大觀》, 上海商務印書館, 1986.  
袁行霈, 《中國詩歌藝術研究》, 北京大學出版, 1987.  
김해명, 이우정, 《창랑시화》, 소명출판, 2001.  
박삼수 역주, 《왕유시 全集》, 현암사, 2008.  
맹철호, 《풍격론》, 사람과 책, 2001.

《中文提要》

盛唐是中國民族古文明之標誌。  
盛唐的昌盛景象是由其政治、軍事、經濟、科學、文化藝術乃至時風習尚、人們之心態風貌等所共同表現的。盛唐的作家作品雖在反映其時代風貌上有多寡、深淺之不同，但均有助於我們準確地了解那一時代。  
盛唐產生了王維。  
本文則選擇盛唐詩人王維來探索王維詩所表現的盛唐氣象。

本文試圖考察以下問題：

- 一. 王維詩所表現的氣象形成要因。

- 二. 王維送別詩所表現的氣象
- 三. 王維山水詩所表現的氣象
- 四. 王維應制詩所表現的氣象

綜而述之, 身處昌明強盛時代的詩人在蒸蒸日上的時代氣息感染下, 自然豪情滿懷, 情滿山河, 故其歌詠山川之什, 描繪市井之章, 亦處處留下這盛世的面影, 洋溢着時代的氣息。

由於盛唐的昌盛繁榮, 國力強大, 社會生活的較為安定, 這一時期人們具有較強的自信心與民族自豪感, 富有建功立業的進取理想熱情與高昂的意氣。這種精神在具有王維送別、山水、應制詩上更為明顯。

文學是社會生活在作家頭腦中能動的反映, 王維生逢盛世, 不能不有感而發。他的送別詩、山水詩、應制詩, 正是盛唐社會生活一個側面的反映。以博大宏闊、氣韻生動、生機勃勃, 包容天下的氣派, 描寫了盛唐的氣象。

**關鍵詞:** 氣象, 盛唐氣象, 送別詩, 山水詩, 應制詩

이 논문은 2010년 11월 18일에 접수되어 2010년 12월 16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0년 12월 21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